

# 올 수능 11월 16일 시행...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 전년처럼 문·이과 통합형...EBS 연계율 50%·소재 유사도 높여 6·9월 모의평가...8월 24일 원서 접수 시작·12월 8일 성적 통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EBS 교재로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더 쉽게 느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 EBS 연계율 50%의 큰 틀을 유지하되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연계 대상 EBS 교재에서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재구성하되, EBS 교재와 더 유사하게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문이나 도표 등의 소재를 이전보다 덜 변형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 수험생들이 적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도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제도를 유지한다.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데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II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직업탐구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지난해처럼 절대평가다.

국어 영역 출제 방향은 어휘·개념,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창의 등 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역점을 둔다. 수학에서는 단순 암기로 해결하는 문항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문항 출제를 지양하되, 계산·이해·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영어 영역에서는 기본 어휘와 함께 시험 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 출제한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시사성 있는 교과서 이외 소재나 내용도 출제된다. 과학 탐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추리, 분석, 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의 경우,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은 7월 3일 공고된다.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성적은 12월 8일 통지된다.

평가원은 올해도 수험생에게 학습능력 진단 기회를 주고 응시자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를 시행한다. 6월 모평은 6월 1일, 9월 모평은 9월 6일이다.

6월 모평 신청기간은 4월 3~13일, 9월 모평 신청기간은 6월 26일~7월 6일이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산대 학생들 5·18 견학 부산대학교 사학과 학생 53명이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를 방문해 해설사로부터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화정 아이파크 빠르면 5월 해체 시작

###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통과...현대산업개발, 2025년 상반기 완료

붕괴사고 이후 철거-재시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재시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서가 통과되면 남은 행정절차는 공사중지명령 해제만 남는다.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이 계획서 중 10여가지 사항을 보완하면 추가 심의 없이 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완 사항은 가설 동바리인 '잭서포트' 해체 및 반출계획, 동선 계획 재검토 등이

며 모두 구조검토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들이라는 설명이다.

계획서 보완이 완료되면 공사중지명령 해제도 곧장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구청 입장이다. 당초 공사중지명령 해제 조건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인데, 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을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이후라도 본격 해체작업은 2-3개월 뒤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카, RCS (레일로 연결된 벽체 거꾸집) 폼, 시스템비계 등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에는 철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철거 작업은 최상층부터 천장·벽체·기둥·바닥 순서로 철거해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천장·바닥과 벽체는 굴삭기를 올려 압쇄 공법으로 부수고, 기둥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DWS) 공법으로 잘라낸다.

철거 작업은 8개 동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한 층을 철거하는 데는 14일 가량이 소요된다.

철거 작업 기한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이며 재시공은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1%의 악성 신고에 '피곤한 119'

### 광주 소방본부, 1년간 비긴급 신고 2780여건 "엄정 대응"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받은 119 신고 100건 중 1건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 폭언·욕설 등을 일삼는 악성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소방본부가 최근 1년간 같은 전화번호로 10회 이상 신고된 건을 분석한 결과 28개의 전화번호로 2783회 비긴급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119신고 32만 6834건의 0.85%에 해당하는 수치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비긴급 신고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관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단

순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신고를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등의 경우였다.

광주소방본부는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방관들의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상습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요의를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소방본부는 욕설·폭언을 동반한 상습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법원 최종판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자살 시도, 지적장애인, 어린이에 의한 신고 등 악의적 의도가 없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호자를 통해 지속 계도할 계획이다.

노점래 119종합상황실장은 "악성신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 공백을 부른다"며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고 접수 근무자의 감정노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남구 '으뜸효 노래자랑' 9개월 대장정

### 4월 5일 예선 시작

광주시 남구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으뜸효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그 노래, 그 사연'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으뜸효 노래자랑'은 개인과 단체 모두 출전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은 개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65세 미만은 개인으로 참가할 경우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을 모시고 노래해야 한다.

곡은 '효'와 관련한 사연이 있는 노래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예선은 곡을 선택한 이유(사연)를 설

명한 뒤 노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 5일 예선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9개월간 이뤄지며 매주 수요일마다 (사)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 스튜디오에서 총 30회에 걸쳐 열린다.

매주 5-6팀이 출전하는 방식으로, 월말 및 상·하반기 본선 무대가 펼쳐진다. 12월에는 총 10개 팀이 연말 결선 무대에서 1등을 두고 경쟁한다.

참가 희망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고령정책과(062-607-3464)나 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062-361-0949)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투자리딩방' 사기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SNS 공개 채팅방에서 원금 보장·고수익 창출 등 여러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들을 주시거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행수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알베르 카뮈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